

### ■ 2005년 국제원자재가격 폭등에 따른 국내산업의 파급효과 전망

#### □ 핵심원자재 가격폭등과 그 원인

- 2004년 원유 등 에너지자원 및 광물자원 가격의 폭등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타격을 받은 바 있는 우리 수출업체가 2005년도에도 철광석(Iron ore) 및 석탄(Coking coal) 가격의 폭등으로 업종에 따라 심각한 원가상승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- 철광석 및 Coaking coal은 철강생산에 사용되는 기본원료로서 Coaking coal의 경우 2005년도 공급가격이 톤당 125달러로 전년대비 120%나 폭등하였으며 철광석은 현재 협상이 완결되지 않았으나 전년대비 두 배나 높은 수준에서 공급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- 이와 같은 가격폭등은
  - 첫 번째, 중국발 수요폭증에 기인하고 있음.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 진행에 따라 철강생산은 2001년 151백만톤 수준에서 2004년 274백만톤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철광석 수입은 2001년 92백만톤에서 2004년 209백만톤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음.
  - 두 번째, 세계경제 회복기조에 기인함. 세계경기의 회복에 따라 한국, 일본, 중국 등 주요 수입국은 물론, 미국 및 유럽의 철광석 및 Iron ore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.
  - 세 번째, 최근 계속되고 있는 미국 달러화 약세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 철광석 및 Iron ore의 최대 수출국인 호주는 2002년말 미 달러화 대비 0.55수준이던 자국 달러화 가치가 1년만인 2003년말 0.79수준으로 30%이상 대폭 절상되었으며 절상분은 고스란히 수입국으로 전가되고 있음.

#### □ 호주의 국제공급가격 결정력과 수급전망

- 철광석 및 Coking coal의 세계최대 공급국은 호주인데, 2002년을 기준으로 호주의 철광석 수출은 176백만톤, Coaking coal 수출은 105백만톤으로 각각 세계 1위를 기록하였음.
- BHP Billiton, Rio Tinto, CVRD 등 세계 3대 공급업체중 CVRD(브라질)을 제외한 나머지 2개사는 멜버른에 본사를 둔 호주 업체임. 국제공급 가격은 이들 공급업체와 주요 수요국인 일본, 중국과의 1년 단위 계약에 따르게 됨.
- 호주 공급업체들은 대체로 중국발 수요가 향후 약 1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추가개발 인력난 및 운송, 항만 등SOC한계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.
- 국내시장에서 호주는 對한국 철광석 및 Coaking coal 최대 공급국임. 2004년 11월까지 한국의 對호주 철광석 수입은 611백만불로서 국내수입시장의 50%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석탄은 35%를 차지하고 있음. 2005년 호주 공급가격이 2배 이상 인상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국내 철강가격의 대폭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2004년 원자재 파동 이상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음.

## □ 자동차 및 부품 수출경쟁력 및 교역조건 악화

- 이에 따라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, 기계류 및 부품은 물론, 일반 건설현장도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게 될 것으로 보임.
- 자동차의 경우 2004년 11월까지 236억달러, 39.6%증가, 자동차부품 53억달러, 39.9%로 각각 40%에 달하는 수출증가를 기록한 수출주종품목이나 수출경쟁력 약화는 물론, 교역 조건도 악화될 것으로 분석됨.
- 자동차부품은 對호주 수출 핵심품목으로서 2004년 11월까지의 수출증가율이 68.3%에 달하여 한국의 자동차 부품 10대 수출국으로 등장한 바 있음.
- 승용차 및 모바일폰, 가전제품에 이어 對호주 수출 4위의 효자품목이며 현지 GM 및 Ford 등 완성차 업계의 OEM 구매수요가 높음.
- 그러나 금년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이 50%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, 공급계약은 3~5년의 장기계약으로 되어 있어 수익조건이 극단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기타 부문에서의 원가절감, 기술혁신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음.

## □ 위기는 기회,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

-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은 한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단기 간내 해소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감안하면, 우리 업계의 노력에 따라서는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업계의 글로벌 재편기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.
- 실제 호주내에서도 원자재 가격급등과 완성차업계의 공급조건 유지압력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지 업체가 도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시장진출의 틈새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.

(문의처 : 멜버른무역관 노인호 [rohih@kotra.or.kr](mailto:rohih@kotra.or.kr))